

# 겨울 산사에서 새해 새 다짐



광주·전남 사찰에서 새해를 맞아 겨울 다양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진 무위사의 지난 템플스테이 모습.

〈무위사 제공〉

## 전국 사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다채...광주·전남 10여 곳 참여 사찰 예절 배우기·소원등 만들기·명상·요가·합동차례·차담 등

생명이 잠시 숨을 고르는 계절 1월. 산사는 다른 계절과는 또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푸르던 이파리가 자취를 감춘 자리에는 천바람이 맵돈다. 고요한 산길과 눈덮인 풍경은 과거를 돌아보고 다가올 시간을 기우하게 한다.

분주했던 일상에서 한 발 물러나 겨울 산사에서 친 마음도 추스리고 병오년 새해를 다짐하는 것은 어떨까.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새해를 맞아 전국 사찰에서 다양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10여 개 사찰이 참여해 청소년 대상 템플스쿨을 비롯해 명상과 요가, 장기 체류형 치유 프로그램까지 다채롭다.

우선 광주 무각사는 오는 17~18일 청소년 대상 '절친 템플스쿨'을 진행한다. 겨울방학을 맞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1박 2일 일정으로, 사찰 예절 배우기와 염주 만들기·명상·예불·사찰음식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또래와 함께 산사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의 균형을 찾는 것도 좋을 듯하다.

영암의 도갑사에서는 오는 2월까지 격주 주말마다 '명상 리트리트 템플스테이'를 이어간다. 싱잉볼

명상과 차·향·명상, 애니어그램 상담을 통해 '나'를 인식하는 시간을 제공하며 산책·차담도 함께한다. 프로그램은 명상을 어렵게 느끼는 이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참가자 개인의 성향에 맞춘 명상법도 제안한다.

더불어 도갑사에서는 또 '스님과 함께하는 영암 이곳 저곳' 프로그램도 열려 영암의 명소들을 둘러보고 자유롭게 산사를 산책하며 충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해남 두륜산 자락의 대흥사는 겨울방학 특별 템플스테이와 설날 특별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요가·명상과 108배, 염주 만들기, 스님과의 차담을 중심으로 움츠러든 몸과 마음을 깨우는 프로그램이다. 설 연휴 기간에는 만두 만들기와 합동차례, 연꽃등 만들기 등 명절의 의미를 산사에서 되새길 수 있는 일정이 더해진다.

해남의 또 다른 산사 미황사는 '겨울 산사에 머무는 하얀 숨'을 주제로 한 겨울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 범종 체험과 새벽 예불, 겨울 숲길 걷기 명상, 온기 차담 등 고요한 수행 위주의 일정으로 구성돼 말보다 숨과 발걸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담양의 용흥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와 대학생·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한 2박 3일 '너나들이' 겨울방학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진로와 새로운 도전을 앞둔 청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래와의 교류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시간을 갖도록 구성됐다. 소원등 만들기와 선명상 좌선, 다도 체험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강진의 무위사는 마련한 프로그램은 '차 한잔, 한 호흡'. 차담과 참선을 통해 일상의 속도를 늦추며 월출산 자락과 녹차밭이 펼치는 기운을 느끼는 시간이다.

이밖에 완도 신흥사, 화순 쌍봉사, 구례 연곡사 등은 일주일 또는 한 달 단위의 장기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필수 일정을 제외한 시간에는 자율적으로 사찰 생활을 이어가며 쉼과 자기 정리에 집중할 수 있다.

조계종 문화사업단장 일화스님은 "어린이와 가족, 성인까지 각자의 삶의 속도에 맞춰 사찰에서 쉼과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돼있다"며 "산사의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다잡고 병오년 새해를 평안하게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각 프로그램의 일정과 참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템플스테이 공식 누리집과 해당 사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 59%는 외국인

지난해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은 관람객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가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5일 국립민속박물관에 따르면 2025년 연간 관람객은 총 228만 6215명으로, 이 중 외국인은 135만 406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관람객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59.2%에 달

했다. 연간 외국인 관람객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5천명대 수준으로 급감했으나 2023년 45만 7천 137명, 2024년 66만 5944명을 기록했고 작년에는 130만명대를 돌파했다.

특히 작년 10월 한 달간은 18만명 이상이 박물관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복궁 인근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은 한국인의 일상부터 일상 의례, 세시풍속, 생업과 신앙 등 다양한 민속 문화를 상설 전시로 소개한다.

박물관은 새해를 맞아 지난 2일 첫 관람객에게 환영 선물을 주는 행사를 열었다.

베트남 호찌민에서 온 단체 관광객을 안내한 원다정 씨는 평소 '한국인의 일상' 전시실을 중심으로 소개한다며 "베트남 관광객의 필수 코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시민 눈높이로 들려주는 불탑 이야기

문화교류호남재단, 8주간 '보들탑' 강좌...매주 월요일 전일빌딩245



천득염 전남대 명예교수가 5일 전일빌딩245 종회의실에서 '보들탑'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제공〉

한국에는 약 1400개에 가까운 석탑이 있지만 이에 대한 역사와 유래, 스토리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들을 수 있는 불탑 이야기 강좌가 진행돼 눈길을 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노경수)은 전남대 천득염 명예교수의 '보들탑'을 8주에 걸쳐 진행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30분 전일빌딩245 종회의실에서 펼쳐지며, 첫 강의가 5일 열렸다.

한국학호남진흥원장을 역임한 천 명예교수는 지난해 '간다라지역의 불교문화와 불탑'(전남대출판문화원)을펴낸 바 있다.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등에 이어 간다라불탑을 연구한 전문도서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미술로 유명한 간다라에는 인도 초기불탑인 산지불탑과 유사한 시원불탑의 변모양상을 보여주는 대형 불탑이 산재한다.

호남재단은 "이번 강좌는 저마다 분야에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시민과 나누는 공공 지식 나눔 '한땀기부' 일환으로 마련됐다"며 "그 첫 시간으로 불탑에 대한 오랜 연구와 전문 지식을 갖춘 천 명예교수를 초청해 '보들탑'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라고 전했다.

당초 소모임으로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무료 공개 시민강좌로 전환됐다.

노경수 이사장은 "한땀기부는 지역의 명망 있는 지식인의 그동안의 결실과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장"이라며 "첫 강좌는 천득염 교수가 그동안 연구해온 불탑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강좌는 천재활의학과의원과 주한건이 함께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창작의 산실에서 글 쓰세요

담양 '글을 낳는집' 3월~12월 입주작가 모집...최대 3개월 입실

담양창작집필실 '글을 낳는집'(대표 김규성)이 2026년 입주 작가를 모집한다.

3월~12월 입주할 입주 작가를 대상으로 하며 단기 1개월, 최대 3개월 입실 가능하다.

이번 입주 작가 모집은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집필환경을 제공하고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주 대상은 대한민국 문인으로 신춘문예 또는 문예지를 통해 등단한 작가, 또는 최근 3년 이내 문예지에 작품을 발표한 작가(창작 활동 실적이 양호한 작가, 창작 계획이 충실히 작가)이며 된다. 격년제가 원칙으로, 2025년 입주 작가는 지원이 재한된다.

모집 분야는 시(시조), 소설, 산문, 평론, 아동문학, 회곡(시나리오), 번역 등 문학 전 장르를 대상으로 한다.

담양 '글을 낳는집' 전경.

〈광주일보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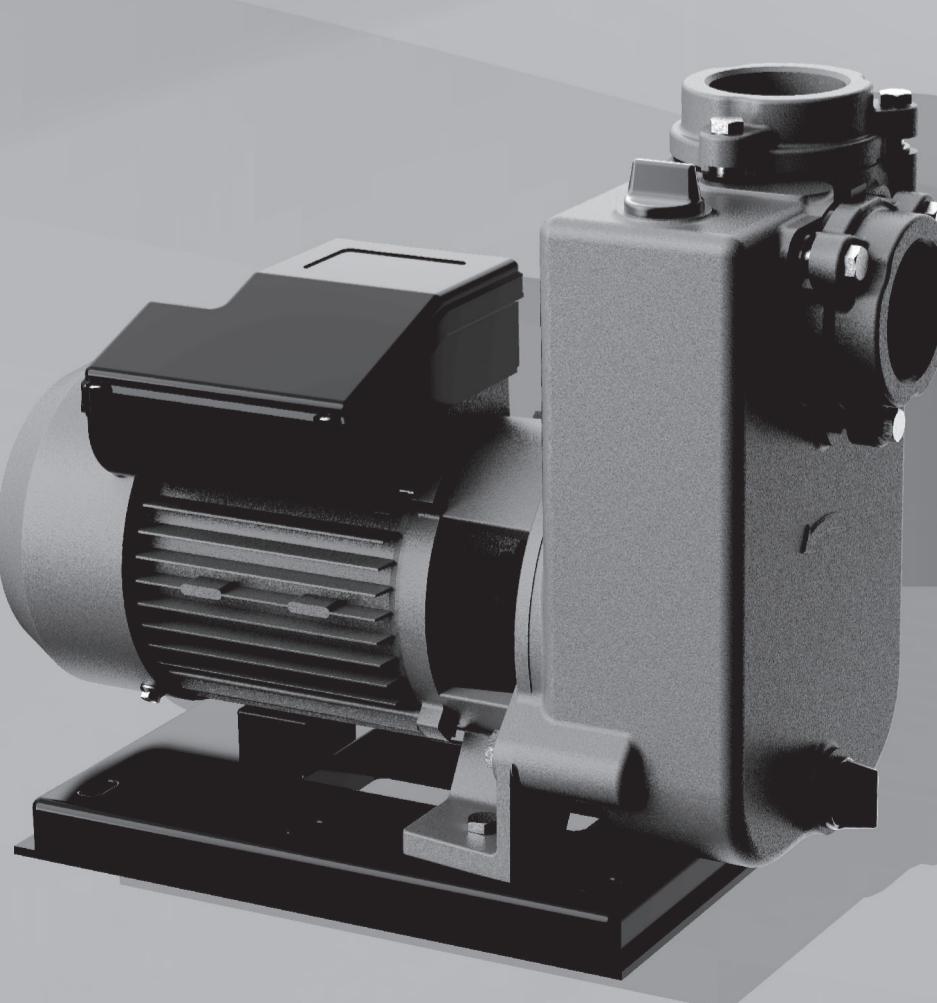


미등단 작가도 지원 가능하다. 단 지원기간별, 장르별, 지역별, 연령별 안배를 고려해 선정하며, 1~2명의 미등단 작가에게도 기회가 제공된다.

시인인 김규성 대표는 "창작에 매진하고자 하는 문인들의 많은 관심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글을 낳는집 홈페이지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월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월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

wilo